

진안, 장내기생충 퇴치 총력

양성자 투약치료 및 재감염 예방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5일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 검진 대상지역과 대상자를 확대 조사한 결과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지난해 0.8%에서 4.2%로 3.4%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퇴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답률 수반지역으로 민물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인 진안군은 2009년부터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감염률이 2009년 7.3%로 꽤 높았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과 어업권소유자를 신규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검사를 확대 실시한 결과 감염률이 4.2%로 높아졌으며 간흡충(간디스토마) 감염자수가 전년도 6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하였다.

장내 기생충 검사는 30대 이상 주민 중 △민물고기 생식경험 및 접촉이 있는 자 △기생충 감염 자각증세가 있는 자 △민물고기 조리관매를 업으로 종사하는 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매년 3월 중 보건소

에서 실시하고 있다.

군은 2019년 검사결과 양성자 50여명(간흡충 24명, 장흡충 16명, 기타 2명)을 대상으로 투약 치료와 재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투약 후 3개월, 9개월 후 재검진을 실시하여 장내 기생충 퇴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평상 시 민물고기를 자주 드시거나 민물고기를 다루는 분들은 검사를 꼭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반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검진자를 확대하여 감염자를 찾고 장내 기생충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우리는 오늘도 도서관 간다"

무주 형설지공군립도서관 문화학습공간 각광

무주군 형설지공군립도서관이 군민들을 위한 문화학습 공간으로 거듭나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일반주민과 어린이,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개관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낮 시간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후감 프로그램은 지난 2일(19:00~20:00) 시작했으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간에는 글쓰기를 비롯한 책읽기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4일 시작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 프로그램은 8월 8일까지(19:00~21:00)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연동화 프로그램(19:00~20:00)은 지난 6월 28일에 이어 11월 27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비눗방울 공연과 풍선아트와 함께 하는 구연동화를 관람해 볼 수 있다.

다.

무주읍에 사는 김 모 씨(40세)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낮에는 아이들과 같이 하기 어려운데 저녁시간을 이용해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책도 보고 구연동화도 관람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형설지공군립도서관 순주양 주무관은 "형설지공도서관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교육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공예, NE, 시 창작·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많은 군민들이 유익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19:00~21:00) 매주 수요일에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간은 한국어 말하기와 글쓰기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 실질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미흡한 부분 보완 지역발전 이바지"

진안군의회 개원 1주년 의정활동 각오 다짐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는 지난 5일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의정실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해 7월 군민의 염원과 희망 속에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 의회'를 슬로건으로 합차게 출발한 제8대 진안군의회가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의회 운영의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 간소화를 위해 내빈 초청 없이 진안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만 참석하였으며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과 사무과장의 성과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제8대 진안군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후, 제246회 임시회부터 제253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106일의 회기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5회 등 총 8회의 회기를 운영했다.

이 중 91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17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군정질문 12건, 5분 자유발언 6건, 행정사무감사

1회, 행정사무조사(진행중) 1회, 현지확인 37개소, 의원간담회 44회, 교육 및 연수 7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년간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토대로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신갑수 의장은 "제8대 진안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그간 미흡했던 점은 보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군민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축제 성공기원 D-100 행사 '성료'

진안군은 2019 진안홍삼축제 D-100일을 맞아 성공을 기원하고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5일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여름을 여는 1004콘서트 樂 콘서트와 함께 진안홍삼축제 D-100 성공기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30여명을 비롯한 진안홍삼연구소, NH농협진안군지부, 축제해설사, 전북인삼농협, 여성단체협의회, 홍삼한방센터상인회,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진안군청 공무원 등 각 분야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관계자들과 콘서트에 참여한 주민, 관람객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붉은 홍삼축제 티셔츠를 입고 진안홍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행사는 축제 성공기원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포토존을 시작으로 카



진안군은 2019 진안홍삼축제 D-100일을 맞아 성공 행사를 가졌다.

드섹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성공기원 행사와 여름을 여는 1004콘서트에 참석하신 1500여명 모두가 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해요'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성공기원 이벤트 행사가 막을 내렸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생생마을 콘테스트 '행복마을상'

부귀면 소재정·마령면 오동마을

진안군 소재정마을과 오동마을이 최근 전북도청 공영장에서 진행된 제6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행복마을상을 수상했다.

소재정마을(의장 김봉철)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라는 마을테마와 '삼대가 행복한 문화복지마을'이라는 마을 비전을 가지고 문화복지 분야에 참여했다.

이 마을은 아이들과 학부모, 어르신 삼대가 함께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즐기면서 화합하는 행복한 마을이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해 마을도서관과 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건강댄스와 고고장구, 풍물놀이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을의 풍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오동마을(의장 최미희)은 '약취가 내던 마을에서 사람냄새 나는 마을로'라는 마을테마와 '꿈이 피

어나 생동하는 오동마을'이라는 마을 비전을 가지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CAC)분야에 참여했다.

낚시꾼들과 축사들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냄새내던 동네를 주민들이 단합하여 향기롭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진안의 3NO운동(쓰레기 안버리기, 안태우기, 안묻기)과 건강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쓰레기를 줍고 마을만들기를 통해 숲을 가꾸고 위험지역을 보완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김봉철 소재정마을 의장은 "콘테스트 수상도 의미가 있지만 콘테스트를 준비하는 동안 주민들이 더 자주 모여 함께 하는 것이 더 즐거웠다"며 "급하지 않게 천천히 주민들과 같이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아카데미 강원국 교수 글쓰기 특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교수의 특강이 지난 5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특강은 '누구나 쓸 수 있는 12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을 담당했던 강 교수의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 글쓰기 기술 등으로 진행됐다.

강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그룹 회장 비서실, 김대중 전 대통령 공보수석실 연설행정관,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대통령의 글쓰기'와 '강원국의 글쓰기'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무주군은 지난 4일 전통문화의집에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부정수급 현장조사 및 처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예산 부정수급 근절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관내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군 산하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보건복지부 위촉 전문 강사이자 임실군 주민복지과 김정숙 노인복지담당관이 이날 교육 강사로 참석해 △복제징정 및 부정수급 현황과 △발생원인, △유형, △정부의 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그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인식이 바로 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여러 상황과 사례들을 보면서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복지과 감미경 과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재정이 국가 예산의 30%를 초과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 군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정의 목소리를 키우고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총 518억원으로 이중 80% 정도가 시설 및 저소득 계층 등 개인에게 복지급여로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